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비련女 잊어주세요 이젠 당당女

‘커피 하우스’ 박시연

“제 옷 찾아 입은 느낌”

비극·비련은 이제 그만. 도도한 것도 이제 그만이다. 박시연(31)이 색깔을 전격적으로 바꿨다. 왜 이제야 바꿨을까 싶을 정도로 잘 어울린다. 우중충하고 어두웠던 겨울 색을 벗어던지고, 너무 화려해서 이질감이 느껴졌던 원색과도 거리를 뒀다. 그랬더니 감춰졌던 진짜 색이 나왔다. 덕분에 연기하는 이도, 보는 이도 부담이 없다.

SBS TV 월화드라마 ‘커피 하우스’에서 출판사 대표 은영을 연기하는 박시연은 요즘 싱글벙글이다. 모처럼 몸도, 마음도 편하고 즐거운 일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를 최근 만났다.

“은영이를 연기하며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은영이가 소리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나면 기분도 좋아져요. 은영이 성격이 너무나 부럽고, 이렇게 멋진 여성을 연기하게 돼 기뻐요.”

서은영은 똑똑하고 당당하며 발랄하고 착하다. 지금껏 박시연이 연기했던 캐릭터들과는 확실히 선을 두고 있는데, 이제야 제 옷을 찾아 입은 느낌이다.

지금껏 그는 드라마 ‘달콤한 인생’, ‘남자 이야기’, ‘빨강사탕’, 영화 ‘마린보이’, ‘사랑’ 등에서 졸골 남자에 끌려 다니거나 아픈 상처를 가진 비련의 여인이었다. 데뷔 초 ‘마이걸’에서는 당당했지만 이물감이 들게 도도했고, 영화 ‘구미호 가족’에서는 섹시한만큼 강조했다.

“영화 ‘사랑’ 때는 광경택 감독님이 밤도, 물도 먹지 말라고 했어요. 역할이 그렇다 보니 슬픈 노래만 듣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번 작품은 내내 즐거워요. 은영이가 능동적이어서 좋고, 자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라서 좋아요. 무엇보다 솔직해요. 전 사실 할 말 다 못하고 살고 별로 능동적이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은영이는 능력있고 자신감이 있으니 여유도 있고 남도 배려할 줄 알아요.”

드라마는 까다로운 베스트셀러 작가 진수(강지한 분)와 그의 비서 승연(함은정)의 엉뚱한 행동들 때문에 연일 코믹한 상황을 연출한다. 그러나 옷을 속에서 이 드라마는 인물들 간의 섬세한 감정을 포착해내며 결코 가볍지 않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한다.

“은영과 진수의 관계, 상태가 너무너무 공감돼요. 우리 드라마가 코믹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드라마예요. 대사 하나하나의 뉘앙스가 남다르고 잔잔한 감정의 충돌이 많아요. 지랑 감지환 씨와 호흡이 잘 맞아서 연기적으로도 참 재미있어요.”

마음이 즐거워질수록 그는 요즘 점점 더 예뻐진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에이 나이가 드는데..(웃음) 요즘은 예쁘고 어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전 별로 명함도 못 내밀 것 같아요. 예쁘다는 말보다는 분위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이미숙 선배님이 나이가 들어서 그분만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보다 예쁘게 느껴지는 연예인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너무 많은데.. 한 예를 씨랑 송혜교 씨는 정말 예쁘지 않나요?”라고 답했다.

무명 시절이었던 2004년 중국 CCTV의 드라마 ‘펑추황(鳳求凰)’ 등 3편의 사극에서 주연을 맡으며 연기를 시작한 그는 어느새 데뷔 6년이 됐다.

“하면 할 수록 어렵지만 그만큼 재미도 있어서 연기가 내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겨울에 쉬어보니 연기 외에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욕심 나는 것도 없고 가슴을 뛰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연기만이 날 가슴 뛰게 합니다.”

그는 이번 변신에 대해 “내가 이렇게 발랄한 역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못 보여 드린 게 너무 많다. 액션, 악역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배우 다니엘 헤니
4년만에 드라마 출연

다니엘 헤니가 비(본명 정지훈)가 출연하는 첩보액션 드라마 ‘도망자’로 4년 만에 브라운관에 돌아온다.

제작사에 따르면 헤니는 ‘도망자’에서 진이(이나영)를 사랑하는 선박업계 부호 카이 역을 맡았다. 다니엘 헤니의 드라마 출연은 ‘봄의 왈츠’ 이후 4년 만이다.

‘도망자’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KBS 드라마 ‘추노’의 천성일 작가와 광정환 PD가 다시 뭉쳐 화제를 모았다. 비가 의문의 사건에 연루된 주인공 지우를 맡았고 이나영이 그의 상대역 진이로 출연한다.

천사女 잊어주세요 이젠 표독女

‘제빵왕 김탁구’ 전인화

“악역도 해 볼 만 하네요”

“연기가 입장에서 대본을 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오랜만이었어요. 이런 드라마라면 악역도 해볼만 하구나 생각했어요.”

탤런트 전인화는 단아하고 참한 이미지의 대명사였다. 술한 남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히기도 한 그가 KBS 수목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에서 표독스런 대기업 회장 부인 서인숙으로 날 선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전인화는 “나답지 않은 팔색조 같은 연기를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신이 나서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처음 대본을 봤을 때 빠른 전개와 탄탄한 구성력에 놀랐어요. 알맹이 없이 포장한 드라마가 아니라 신뢰가 커요. 매회 대본 나오는 게 기대돼요.”

그가 연기하는 서인숙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다. 거금을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자 옛 사랑과 불륜으로 아들 마준(신동우)을 낳고 남편과 부모 사이에 태어난 김탁구(오재무)가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김탁구를 제거하려 한다.

“독한 역할이다보니 소리 지르는 장면이 많아서 목이 아플 지경이에요. 가족들은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 이상하다고도 해요.”

얼마전 어린 김탁구의 뺨을 때리는 장면에서는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했다.

“가짜로 때릴 수 있는 앵글이 아니어서 한번에 끝내자는 심정으로 했는데 때리고 나서 예를 안고는 ‘어떡해- 어떡해-’ 했어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오재무군 어머니는 오히려 더 세게 맞아가지 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불륜 등 자극적 요소가 많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드라마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인생의 밑바닥을 파헤쳐 보면 더 드라마틱한 일들도 많잖아요. 자극적인 이야기 속에는 휴머니즘도 있었어요. 시청자들이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는 이 드라마를 하면서 도전하는 재미를 느꼈다고 했다.

“처음에는 너무 강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게는 새로운 도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마흔 전에 하고 싶은 역할을 가려서 했다면 지금은 어떤 역할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연합뉴스



대한민국 중심매체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RADIO

가톨릭방송 CBS

080-800-1031

ITV